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22.5.17.(화)	담당부서	해외문화홍보원 주독일한국문화원 문화 1팀
담당과장		담당자	노아 (+49-30-26952-174)

## 주독일 한국문화원, '체크포인트: 한국에서 바라본 국경' 전시 개최

### - 예술로 전하는 세계 모든 경계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

주독일한국문화원(원장 이봉기, 이하 문화원)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KOFICE),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대표 최수영)와의 협력을 통해 독일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에서 5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리얼디엠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체크포인트: 한국에서 바라본 국경> 전시를 개최한다.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REAL DMZ PROJECT, 이하 RDP)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그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동시대 미술 프로젝트다. RDP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예술가, 건축가 및 학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한반도 분단에 대해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리서치, 컨퍼런스, 출판 등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자 아트선재센터의 관장 김선정 예술감독이 기획하였으며 국내외 세계적인 작가 이불, 양혜규, 제인 진 카이젠 등 총 19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그 중에는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최찬숙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어 분단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작품들을 경험시켜 준다. 또한 참여 작가인 오형근의 <중간인> 시리즈 4점은 본 전시를 계기로 독일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다룬 한국 현대미술을 독일에 더욱 널리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전시가 개최되는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은 독일 주요 미술관 중 하나로 폭스바겐 예술재단의 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건축가 피터 슈베거가 설계한 웅장한 유리 건축물과 차별화된 큐레이션으로 명성이 높은 미술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이번 전시를 위해 전시 공간을 총 800평방미터로 확장하기도 하였다.

문화원은 2020년에 이미 독일 통일 30주년을 계기로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에서 RDP 전시를 추진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 주요 예술기관과 재외한국


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개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트’ 사업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독일의 락다운으로 2020년 전시는 중단되고 지난해 온라인 전시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는 드디어 관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에서 DMZ가 역사·문화적 의미에서 다층적으로 이해되며 예술을 통해 평화의 담론을 제시하는 전시가 볼프스부르크라는 접경도시에서 개최하는 것 또한 의미를 더한다. 독일 통일 이후 접경지역이 일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바뀐 구 동서독 경계지역인 볼프스부르크에서의 전시 개최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모든 경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주독일 한국문화원에서 제작한 도록의 표지를 장식한 사진작가 오형근의 작품은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성상의 초상일지도 모르는 사병의 모습에서 개인과 국가라는 중간 자리에서 느낄 막연한 불안감을 보여주며 전시에서 경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높은 층고가 돋보이는 전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아 공간을 압도하는 4미터 높이의 이불 작가의 작품 <오바드 V>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철거된 감시탑에서 나온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양혜규 작가의 사운드 작품 <Genuine Cloning>은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당시 녹음된 영상의 소리와 인공지능 기술로 복제된 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이어 등장하는 최찬숙 작가의 <60호>는 분단의 최전선인 DMZ 접경지역 민통선 마을 중 한 곳에 정착한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막식에는 주독일대한민국 조현욱 대사와 관할 지역인 함부르크 정기홍 총영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맡을 예정이며, 주독일 한국문화원은 이번 전시에서 가야금 및 첼로 협주 공연과 VIP들을 위한 한식 케이터링을 통해 예술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다층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봉기 문화원장은 “예술은 시대의 초상으로, 그 시대가 가진 아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들의 분단을 주제로 구현한 내러티브들이 관객들을 만나 확장되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마음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희망이 함께 기록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1. 전시 개요, 붙임2. 전시 작가 및 작품 소개. 끝.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담당자 노아 (☎ +49-30-26952-17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 행사개요

- 전시명 : 체크포인트: 한국에서 바라본 국경
- 참여작가 : 노순택, 미샤 라인카우프, 토비아스 레베르거, 지비 리,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아르나우트 믹, 민정기, 박찬경, 양혜규,  
오형근, 이불, 이우성, 임민욱, 장영혜중공업, 전소정, 최대진,  
최찬숙, 제인 진 카이젠, 함경아
- 전시기간 : 5월 21일 ~ 9월 18일
  - 5월 19일 기자회견
  - 5월 20일 오후 5시 VIP 프리뷰
  - 5월 20일 오후 7시 본식 개막식
- 장소 : 독일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  
(Hollerpl. 1, 38440 Wolfsburg, Germany)
- 주최/주관 : 주독일 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트래블링 코리안 아트  
(Traveling Korean Arts)),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 주제 :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와 그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진, 미디어, 설치 등 동시대 미술 프로  
젝트 전시

## □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전경





-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을 매개로 작업하는 작가는 <붉은 틀> 시리즈에서 ‘아리랑 축제’ 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매스게임을 다룬다. <붉은 틀>(2005)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전시에서는 첫 번째 장에 담긴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 장에서 북한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재현했다고 말한다.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 북한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듣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 미샤 라인카우프(Mischa Leinkauf):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Northern Limit Line, (North Korea, South Korea)>(2019)에서 1945년 이후 분단된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강에 주목한다. 이 2채널 영상 작업에서 작가는 드론을 이용해 한강의 경계를 넘어, 이념적으로 대치되는 두 체제를 이어주는 장치로써 한강 물을 조망한다. 육지에서는 영토 간의 분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작가는 자연의 공기와 물을 통해 인간이 만든 경계를 깨뜨린다.
-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독일 출신인 작가는 양지리에서 볼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의 집을 프로토타입으로 삼아 작업의 개념을 떠올렸다.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2017-현재)는 남한과 북한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두 세대용 주거 형태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작업으로, 언젠가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과 북한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있다.
- 지비 리(Jeewi Lee):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동양의 전통 복사 기법인 “탁본”을 사용해 38선 근처 다섯 개의 나무의 본을 뜬 작품인 <INZISION(Incision)>(2018)을 선보였다. 작가가 선정한 나무들은 모두 1945년 남북 분단 이전 다 자란 것들로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살아 있는 증언으로서 자리한다. 또 다른 작품 <FRAKTUR(Fracture)>(2018)는 흑과 백의 자갈이 전시 공간을 반으로 나눠 경계를 이루며 채우는 설치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INZISION>을 관람하기 위해 자갈밭을 직접 걷게 되며, 이에 따라 서서히 섞이게 되는 흑과 백의 자갈은 남과 북의 경계가 상호작용에 의해 흐려지는 남과 북의 미래에 대한 작가의 희망이자 은유를 담고 있다.
-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Adrià Villar Rojas):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인 로하스는 리얼 디앰지 프로젝트의 초대로 2014년 당시 철원 민간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양지리에 1개월 머물렀다. 작가는 이곳에서 주민들과 지내며 바라본 그들의 일상을 55분 31초의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2017)이라는 영상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 아르나우트 믹(Aernout Mik): 네덜란드 태생의 작가는 2012년 한국 방문 당시 접했던 아이스크림 고지에 대한 이야기에 착안하여 <아이스크림 고지>(2014-2015)라는 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삽슬봉(아이스크림 고지)은 격전으로 인해 산 정상에 흩날린 아이스크림 녹는 모양처럼 보인다고 하여 미군들이 붙인 이름이다. 작품은 이곳에 눌러 간 젊은이 중 한 명이 군복을 입게 되자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담아내며, 군대라는 시스템을 통해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간접적으로 체화했을 한국의 젊은 세대를 다루고 있다.
- 민정기: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지형적 요소와 그 안에 어우러진 인간의 흔적을 다루어 온 작가는 <포옹>(1981)에서 철조망을 뚫고 만난 두 남녀가 포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두 남녀의 배경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 공간 내에 형성된 삶의 특수한 시간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의 산수를 담아내고 있다.

- 박찬경: <세트>(2000)는 남과 북에 지어진 다양한 세트장을 촬영한 사진을 교차 배열하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남한의 영화 세트장,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부대 내에 모의 시가전 훈련을 위해 조성된 세트의 모습을 담는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재현된 세트장은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그 안에 자리한 이념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교란하는 “세트”의 특수성을 통해 우리가 자리한 현재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박찬경의 또다른 작품 <비행>(2005)은 2000년 6월 한국전쟁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한 시간 동안의 비행 모습과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약 13분으로 편집한 단편 영화이다. 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의 앞부분이 영상의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마을, 공항, 환영 인파 등을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영상은 냉전과 탈냉전을 오가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 양혜규: 꽃가루, 로봇 별, 태양광 패널, 번개 등이 함께 그려내는 벽지 작업인 <디엠지 비행>(2020)은 자연과 인류가 충돌하는 비무장지대 공간을 수사한다. 물질의 응결과 분열로 발생하는 힘의 파장은 비무장지대라는 이 땅의 특수한 장소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병치 되어 시각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드러난다. 사운드 설치 작업 <진정성 있는 복제>(2020)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녹음된 소리에 인공지능 기술로 복제된 작가의 목소리를 삽입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는 작가를 대행하는 목소리-분신으로 내면과 외적 요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가짜 목소리’로서 다양한 스피커 조합 “소리 열매”를 통해 송출된다.
  
- 오형근: 본 전시를 계기로 독일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에 4점이 소장된 오형근의 <중간인> 시리즈는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성상의 초상일지도 모르는 군인의 모습에서 개인과 국가라는 중간 자리에서 느낄 막연한 불안감을 담아낸다. 그러한 ‘중간적인 불안’은 작품 속 군인들의 미묘한 동작과 표정들로부터 포착된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군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7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경계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 이불: <오바드 V>(2019)는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2018년 철거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나온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타틀린 타워나 에펠탑과 같은 모더니스트 건축물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4미터 높이의 이 대형 조형물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호들이 깜박이며 나타난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오바드 V>는 유토피아적 또는 선구적인 야망보다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조형물로 여겨진다.
  
- 이우성: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2021)는 2021년 북한의 선전마을과 가까운 김포의 애기봉 방문을 계기로 제작되었다. 작가는 망원경 너머의 북한 마을을 바라보며 7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북한의 분단 역사 속에서 개인의 서사를 상상했다. 원래는 하나였으나 지금은 둘로 나뉜 남과 북,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두 땅 사이에 자리한 ‘경계’를 축소하고자 4미터 너비의 천 안에 작가가 보고 상상한 것을 충실히 담아내었다.
  
- 임민욱: 단채널 영상인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2018)는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에 등장한 한국전쟁 이후 이별한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주로 담는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이산가족의 모습을 보며, 작가에게 방송국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과 역사를 되살리는 대화의 장으로 다가왔다. 영상과 함께 놓인 대형 조명 오브제인 <블랙홀>(2015)은 전시 공간을 가상의 방송국으로 재현하여 “불가능성”에 대한 재탐구를 시도한다.

- 장영혜중공업: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우리의 디엠지>(2022)에서 작가는 자본과 성에 대한 욕망을 다소 노골적인 묘사를 통해 사회, 역사, 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예술적 장치로 사용한다. 디엠지 친환경 웰빙 버스 투어의 가이드로 등장하는 주인공 김선희는 버스에 탑승한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우리가 자리한 ‘현재’에 대한 통렬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 전소정: <먼저 온 미래>(2015)는 탈북 피아니스트와 남한 피아니스트가 만나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합주하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영상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 내 예술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한다.
  
- 최대진: <라스트 찬스>(2021)는 2000년 일본 오사카에서 이뤄진 남한의 조인주 선수와 조총련계 홍창수 선수의 프로복싱 대결의 한 장면을 재현한 작품이다. 경기 당시 홍창수의 허리에는 ‘ONE KOREA’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북한 최초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인 홍창수는 인민체육인으로 선정되어 북한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링에는 38선이 없다”고 외치던 그는 사각 링을 혈전의 장이 아닌 화합의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작가는 이 역사적 만남의 순간을 거칠고 역동적인 페인팅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했다.
  
- 최찬숙: 24분 길이의 영상 작업 <60호>(2020)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토지 개간 사업과 대북 선전을 위해 북측에 배치된 112개의 DMZ 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자리 잡은 선전용 마을 여성들의 사적인 서사를 다룬다. 전쟁 또는 그 잔재인 지뢰로 남편을 잃은 여성 이주자들은 가부장적 호주제로 인해 마을 군인들에게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기 시작한다. “60호”는 다른 아닌 이제 숫자가 되어버린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름에도 습하고 서늘한 이 민북 마을 집안 곳곳에 실제 태양보다 더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온풍기(<인공 태양>(2017))가 숫자로 불리는 여성 이주자들의 삶에 온도를 부여한다.
  
- 제인 진 카이젠(Jane Jin Kaisen):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십여 년간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예술적 실천을 해온 작가는 <구멍 ! 유행 ! 균열>(2016)에서 두 국제 여성 사절단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을 담은 36장의 흑백 사진을 붉은색의 삼면화 라이트 박스에 설치하여 보여준다. 36장의 사진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덴마크의 언론인이자 여권 운동가인 케이트 플레론에 의해 촬영된 북한의 사진과 작가가 2015년에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된다. 각기 다른 시간에 촬영된 북한의 사진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냉전의 양극화가 지속되었음을 가시화한다. 영상 작품인 <Sweeping the Forest Floor>(2020)는 지뢰탐지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후 민통선(남방한계선 바깥 남쪽으로부터 5~20km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 울창한 숲에서 지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추적한다. 25분간 편집 없이 촬영된 이 영상 중간에 등장한 지뢰를 제거하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모습이다. 카이젠의 작품은 한국전쟁의 외상적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뿐 아니라 DMZ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 함경아: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해온 “자수 프로젝트”는 작가가 집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한의 선전용 ‘빠라’를 보고 알 수 없는 북한의 누군가와 예술적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안되었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우리의 일상과 상반되는 폐쇄적인 북한 주민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자수 프로젝트 중 하나인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샹들리에 DSK M 02-D-05, 06, 07 (Triptych)>(2018-2019)는 북한 카드 섹션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